



아빠의 숨겨진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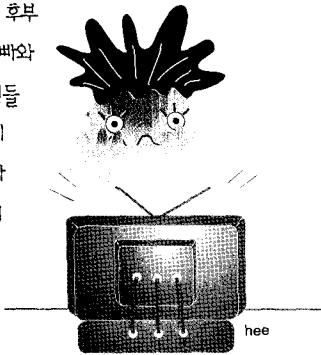
육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빠가 숨겨둔 이상한 제목들의 포르노를 봤어요. 막연히 어떤 내용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궁금증을 풀기위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 안났어요. 너무 장그럽고 끔찍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해서 나를 낳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니 부모님이 잠승처럼 보이고.. 얼굴도 똑바로 못쳐다 보겠고, 임신한 아줌마들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결혼 하기도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하

는게 결혼 아니가요? 그걸 본 후부터 엄마와 말도 하기 싫고, 아빠와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남학생들이 그런걸 자주 본다고 하던데 우리반 남자애들도 싫어요. 자나깨나 그 장면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몰래 숨겨둔 성인 영화를 보고 나서 충격을 많이 받았군요.

포르노의 내용은 사춘기 여학생이 밤마다 혼자 상상하는 낭만적인 사랑도 아니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므로 정말 놀랐겠지요?

성관계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애정과 신뢰,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종의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포르노와는 많이 다르답니다. 포르노는 보는 사람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므로, 청소년

들에게 거짓 성정보를 전해주고, 이를 보고 나서 모방 성범죄를 자주 저지르곤 해서 문제가 많이 되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청소년이 아니지요?

물론 어른이라도 포르노를 보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포르노의 내용이 실제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른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하는 성관계는 서로에게 끈끈한 애정과 믿음과 즐거움을 주지만, 음란물의 성기 중심, 행위 중심, 변태적인 행위는 인간을 마치 성적 동물처럼 매도하게 되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라는 시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수억 마리의 정자 가운데 단 한 마리의 정자만이 난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생명을 임신한 엄마는 자나깨나 뱃속의 태아를 생각하면서 열달동안 온갖 정성을 다 쏟게 되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고통은 또 어떠한가요?

이를 악물고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지만,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은 환희와 감탄과 경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OO님이지요.

생명의 경이로움을 지켜본 사람이야말로 성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잉태, 이는 참으로 숭고하고 고귀한 인간의 행동인데, 언젠가는 OO님도 새로운 생명을 온몸으로 느끼고 감싸안을 날이 오겠지요?

그 날을 위해 자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여성으로 성숙되길 바랍니다.